



서류 기반 면접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시험. 서류에 나타난 수험생의 역량이나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기도 하며 동시에 서류의 진실성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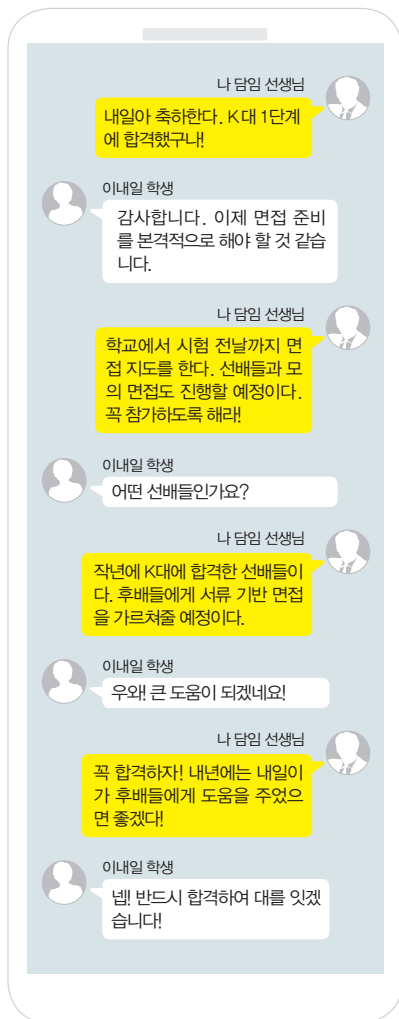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 서류 기반 면접은 서류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울대 수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연세대 수시 학생부 종합 면접형, 고려대 수시 학교 추천 전형은 교의 추천을 받은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의 추천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며, 성적도 출신 학교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하여 면접 시간이 짧습니다. 또 평이한 질문으로 수험생의 태도나 인품을 평가합니다.

✦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면접 문항으로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00과목의 성적 변화가 심한데 그 이유는?' '00경시대회에서 1위를 했는데 00교과는 왜 2등급인가?' '학급회장을 하면서 급우들과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해소했는가?' 와 같이 학생부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확장하여 수험생의 발전 가능성 등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 대학별로 면접 평가 기준, 방법, 시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10분 내외(의과대학은 2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는 10분(의학 계열은 25분) 내외로 인성 50%+전공 적합성 50%, 성신여대는 인성 20%+전공 적합성 및 학업 역량 50%+발전 가능성 30%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확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대학별로 진행 방식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지원한 대학의 평가 요소, 요소별 반영 비율, 평가 내용, 기출문항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맞춤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속 입시 용어

서류 기반 면접에서도 난도가 높은 질문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고위도로 갈수록 중력이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고...’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응용하여 ‘중력과 만유인력의 차이점은?’ ‘우주 기지가 주로 저위도에 있는 이유는?’ 등 다양한 난도의 질문을 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준비 시간이 있지만,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야 합니다. 또 면접관은 수험생이 대답하는 중에 압박 질문으로 태도나 지적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질문은 지원한 대학의 전년도 질문 경향에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경험을 해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을 만들고, 모의 면접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심화 응용 사례

코로나19로 면접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코로나19로 많은 대학들이 면접 방식을 비대면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전형은 사전에 공개된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지원자가 영상으로 녹화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 영상을 2인의 면접관이 태도 위주로 만점과 0점(불합격)으로 평가합니다. 건국대 KU자기추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등은 수험생이 시험일에 대학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면접관과 실시간 화상 면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대학마다 면접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